

# 한국주거학회지를 통해 본 주거학 영역의 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Housing Science by analysing of Journal of the Korea Housing Association

김현지\*

Kim, hyun-ji

김현진\*\*

Kim, hyun-jin

안옥희\*\*\*

An, Ok-h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 of Housing Science by analysing the studies published on journal of the Korea Housing Association.

As results, total 571 papers, about 408 papers every year, were published from 1990 to 2003. Among them, 65.7% of the total was joint research.

The most studied topic 146 papers was the theory of Housing, and the least 5 papers, was related to Housing Policy. Survey method(38.4%) was used to these research papers as the most popular method.

주요어 : 주거학, 연구동향

### I. 서 론

주거학의 학문적 목표는 집을 짓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조건에 가장 적당한 주거를 찾아내고 주어진 주거공간을 생활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건전한 주거관을 형성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전승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학은 1970년 이후 가

정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디자인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인간공학 등에서의 학제간 접근이 활발해지면서 주거학의 근간이 되는 가정학의 특성인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내적측면의 향상 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용과학적 특성 또한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하였다(안옥희 외, 1997).

모든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주거학의 연구는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범위, 내용, 타학문 분야와의 관계,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주거학이 가지고

\*정회원, 영남대 가족주거학전공 객원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영남대 가족주거학전공 겸임교수,

\*\*\*정회원, 영남대 가족주거학전공 교수, 학술박사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거학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등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는 정보사회라 불리고 있을 만큼 여러 정보를 일상생활에 있어 접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활용도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많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학 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한국주거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주거학의 모든 영역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주거학회지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를 연구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주거학회지는 주거학, 주거건축, 주거환경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3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A급 1차 등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 학술대회 및 월례 세미나 개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련학회와 긴밀한 학술적 교류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어 주거학에 관해 연구주제를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료는 한국주거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창간호가 발행된 1990년부터 최근 2003년까지 13년 동안의 모든 논문을 이용하였다.

또한 전공분야를 한국주거학회에서 분류한 주거이론, 주거사, 주거의장, 주거환경계획, 주거단지계획, 주택관리, 주택건설·경영, 주택기술, 주택정책·제도 등 총 9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분야별 분류는 논문의 제목 및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분류 범위가 불분명한 것은 저자의 구성 및 논문의 결론 등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전공분야, 논문수, 저자수, 연구방법이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전반적인 연구동향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1990년)부터 2003년에 걸쳐 게재된 논문수와 저자수를 살펴보았다<표 1>

전체 발표된 논문수는 571편이며, 연간 평균 약 40.8편이 게재되고 있다. 한국주거학회의 회원수는 약 1000여명이므로(한국주거학회 회원명부, 2003) 게재 논문수/회원수로 연구의 활발성을 산정해보면 회원 1인당 연간 약 0.041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연도별 논문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문집 발간횟수에 따른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 연 2회의 학회지가 발간된 1990년~1996년 사이의 연간 평균 게재 수는 19.9편, 연 3회 발간된 1997년~1998년의 연간 평균 게재수는 41편, 연 4회로 발간회수가 증가한 1999년~2001년의 평균 게재수는 62.7편이며, 연 6회로 증가한 2002년~2003년의 평균 게재수는 81편으로 증가되었다. 즉 게재 기회가 많을수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형태를 보면, 저자 단독연구는 전체의 34.3%(196편)을 차지하고, 공동 연구는 65.7% (375편)을 차지하고 있다. 시계열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木森 외(1980)의 연구결과나 안옥희(1993)의 연구결과에서 추측한 것과 같이 단독연구의 비율이 20~30%를 유지한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연구는 1990년에는 1편도 없었지만 그 후 3년간 1편씩 꾸준히 게재되었고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총 15편으로 전체 논문수의 15.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주거에 대한연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누적 저자수

표 1. 연도별 논문·저자 현황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
전체 논문수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571	100.0
연 구 형 태	단독연구	4	7	6	5	6	13	11	12	10	20	23	28	15	36	196	34.3
	공동연구	13	7	10	8	15	18	16	31	29	49	29	39	50	61	375	65.7
	국내연구	17	13	15	12	17	28	22	37	34	61	41	63	59	82	501	87.7
	국제연구	0	1	1	1	4	3	5	6	5	8	11	4	6	15	70	12.3
저 자	전 체	37	21	29	21	45	55	52	86	88	154	96	121	135	190	1130	
	평 균	2.18	1.5	1.81	1.62	2.14	1.77	1.93	2	2.26	2.23	1.85	1.81	2.08	1.96	1.98	

가 1130명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간 4회 발간을 시작한 1999년부터 저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명을 넘어섰으며, 2003년도에는 누적 저자수가 190명에 이르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저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연도별 총 저자수를 총 논문수로 나누어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수를 살펴보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일정한 변화 경향 없이 평균 1.98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 2. 전공분야별 연구동향

주거학 영역의 연구는 최근 그 전공분야가 넓어지고 그 범위나 내용 및 방법이 세분화되었다. 이에 한국주거학회에서 분류한 총 9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하여 연도별로 계재된 논문수를 살펴보았다<표 2>

창간호가 발행된 1990년에는 총 2회의 학회지를 내면서 논문수가 많지 않았지만 게재되는 논문수의 증가와 함께 그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도 「주거이론」에 대한 논문이 총 146편(25.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거의장」이 108편(18.9%), 「주거단지계획」이 91편(15.9%)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기술」과 「주거정책·제도」 분야는 13년 동안 각각 7편과 5편에 불과하여 관련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 3.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주거학 영역의 논문을 각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았다<표 3>

차배근(1988)에 따르면 연구를 그 방법에 의

표 2. 연도별 전공분야 현황

연도 전공분야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주거이론		6	6	4	3	5	11	6	12	8	21	12	20	11	21	146( 25.6)
주거사		5		2	3	4	2	5	8	3	11	3	7	13	10	76( 13.3)
주거의장		3	4	6		6	5	5	8	8	15	10	10	7	21	108( 18.9)
주거환경계획		3	3	2	4	2	4	5	2	5	4	11	7	7	12	71( 12.4)
주거단지계획						6	3	9	8	14	10	14	12	15	91( 15.9)	
주택관리		1	2	3	1		3	1	3	3	1	4	12	7	41( 7.2)	
주택건설·경영					2	3		1	3	1	4	4	1	7	26( 4.6)	
주택기술								2	1		1	1		2	7( 1.2)	
주거정책·제도					1									2	2	5( 0.9)
전 체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571(100.0)

해 크게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3개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를 기본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8개의 연구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안옥희, 1993). 또한 과거에는 없던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방법이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분야의 논문이 어떤 방법을 채택하였는지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연구방법(38.4%)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실험연구방법(6.7%)이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연구방법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고찰해보면, 복합연구방법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문지조사(26.1%), 도서관survey(20.5%)의 순이다 한편, 응용실험방법(2.3%)과 순수실험방법(4.4%)은 아주 적게 사용되었다.

또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점차적으로 복합연구가 증가하여 1편의 논문에 다양한 연구방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방법도 2001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전공분야별 연구방법 분류

전공 분야별로 연구방법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거사」, 「주택기술」, 「주택정책·제도」 분야에는 문헌연구방법이, 「주거이론」, 「주거의장」, 「주택관리」, 「주택건설·경영」 분야에서는 조사연구방법이, 「주거환경계획」 분야에서는 실험연구방법이, 「주거단지계획」 분야에서는 복합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방법을 세분화시켜 각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이론」 분야에서는 설문지조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거사」 분야에서는 역사적 연구방법과 복합연구방법이, 「주거환경계획」 분야에서는 순수실험연구방법과 복합연구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주거의장」, 「주거단지계획」, 「주택관리」, 「주택건설·경영」 분야에서는 설문지조사방법과 복합연구방법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거학회지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주거학 영역의 연구를 전공분야별, 즉 주거이론, 주거사, 주거의장, 주거환경계획, 주거단지계획, 주택관리, 주택건설·경영, 주택기술, 주택정책·제도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주

표 3 연도별 연구방법 현황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문헌 연구	도서관 survey	3	4	4	1	4	8	6	8	11	22	9	14[2]	8[2]	15[1]	117( 20.5)
	역사적 방법	2	0	3	1	1	0	2	2	0	1	2	8	6	7	35( 6.1)
소 계		5	4	7	2	5	8	8	10	11	23	11	22	14	22	152( 26.6)
조사 연구	설문지	3	3	3	4	9	15	9	15	13	19	12	8	13[1]	23	149( 26.1)
	면접	3	2	1	2	1	2	1	2	4	4	5	4	3	3	36( 6.3)
	실측	1	0	1	1	2	0	2	3	2	4	5	1	4	8	34( 6.0)
소 계		7	5	5	7	12	17	12	20	17	27	21	14	21	34	219( 38.4)
실험 연구	순수	0	0	0	1	0	1	1	1	2	5	6	3	4	4	25( 4.4)
	응용	0	0	1	1	0	1	1	1	2	2	1	2	0	1	13( 2.3)
소 계		0	0	1	2	0	2	2	3	4	6	8	3	5	38	38( 6.7)
복합연구		5	5	3	2	4	4	5	11	8	15	14	23[2]	27	36[2]	162( 28.3)
합 계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571(100.0)

\* [ ]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를 나타냄.

표 4 전공분야에 따른 연구방법 현황

전공분야	연구방법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복합연구	
		도서관·역사적 Survey·방법	소계	설문지	면접	설측	소계	순수	응용		
주거이론	41[2]	6	47[2]	58	18	1	77	1	1	2	20[1]
주거사	14	25	39			13	13		1	1	24
주거의장	15[1]	2	17[1]	38	2	6	46		5	5	39
주거환경계획	8		8	10	2	8	20	21	4	25	18
주거단지계획	17[2]	2	19[2]	20	9	4	33		2	2	37
주택관리	8		8	13[1]	5	1	19[1]				14
주택건설·경영	8		8	9			9	1		1	8[3]
주택기술	3		3			1	1	2		2	1
주거정책·제도	3		3	1			1				1

\* [ ]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를 나타냄

거학 영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거학 영역의 양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총 571편이 계재되어 연간 평균 약 40.8편이었다. 특히 연간 학회지 발간횟수의 증가에 따라 계재 논문수가 급증하였다.

연구형태는 공동연구(65.7%)가 많았으며, 평균 저자수는 1.98명이었다. 한편, 국제적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전공분야별로는 「주거이론」과 「주거의장」 분야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사」와 「주거환경계획」 분야 또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을 기점으로 「주거단지계획」과 「주택관리」, 「주택건설·경영」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택기술」 및 「정책·제도」 분야의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연구방법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연구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복합연구방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문헌연구나 조사연구도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학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안옥희(1993), 가정학 영역의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논문집 제12권 제1호, 145-151.
2. 안옥희·윤재웅·배정인 공저(1998),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3. 차배근(1988),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4. 한국주거학회논문집(1990-2003).
5. 한국주거학회회원명부(2003).
6. 木森正司 외 1명(1980), 家政學雜誌における研究課題の變遷と特徴, 日本家政學會誌, vol. 31, no. 1, pp.78-82.